

# 북

## 위기는 '검은 백조'처럼 나타난다

블랙 스완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지음·차의중 옮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뉴턴의 만유인력 발견 등은 인류 역사에 있어 위대한 발견으로 꼽혔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었다.

'하얀 새인 백조 역시 오랜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식 중 하나였다. 17세기 호주를 여행 하던 유럽출신의 조류학자들에게 검은 색의 백조인 '블랙 스완(black swan)'이 발견되기 전까지 말이다. 백조의 색깔이 '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백조는 하얗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리먼 브리더스, 메릴린치 등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을 잇따라 무너트리면서 세계 경제를 공황상태에 빠트렸다. 현재 세계의 금융시장은 예측하지 못했던 검은 백조가 또 어디선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월가의 투자 전문가이자 수학자인 니콜라스 탈레브는 '블랙 스완'을 통해 가능성 없는 희박한 사건이나 우리가 믿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증시 폭락이 가져온 글로벌 경제위기를 검은 백조가 현실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책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에는 일상적인 '평범의 왕국'과 돌발성이 지배

하는 '극단의 왕국'이 존재 한다.

'평범의 왕국'은 하나의 상황이나 사례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세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무작위로 1만 명의 사람을 뽑아 몸무게의 평균을 낸다면 이중 뚱뚱한 사람이 포함된다면 해도 그 하나의 사례는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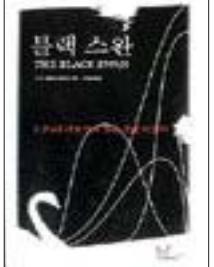
반면 '극단의 왕국'에선 아래적인 하나가 전체를 뒤바꾼다. 역시 무작위로 1만 명의 사람을 뽑아 생산 평균을 냈을 때 그 중 빛 게이츠가 섞여있다면 어떻겠는가. 엄청난 재력가인 빛 게이츠의 재산은 남은 9천999명의 합보다 월등히 많아 전체 평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자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세계에는 예기치 못했던 검은 백조가 존재하며 제1·2차 세계대전, 9·11테러, 인터넷의 발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부제를 가진 이 책은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인습적 사고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설불리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독서 등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해 검은 백조가 주는 긍정적인 기회를 서둘러 잡으라고 조언한다.

검은 백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수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 예측 금지

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



저자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엄청난 충격을 동반하는 '블랙 스완'이 주식시장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다고 주장한다.

여러선가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 사람들이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살아남는다는 평범한 진리다.

〈동녘사이언스·2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 시인 김경주

'펄프 키드' 폐내



광주출신으로 시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로 유명한 시인 김경주가 '펄프 키드'를 폐냈다.

'김경주의 사물놀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상마당'이라는 인터넷 웹진을 통해 연재됐던 글들을 수정, 보완해 엮은 것이다.

저자는 '꽁치'라는 분신을 등장시켜 타자기, 링크 담요, 비끼니 웃장, 목풀라, 팬팔복 등 어린시절 추억을 함께 나눴던 사물들에 대한 기억과 단상을 풀어놓았다.

책에 실린 35가지의 에피소드는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상상력이 가미된 글들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액션 애세이'라고 할 수 있다.

〈뜨안돌·1만2천원〉  
/이은미기자 emlee@

## 시인의 눈으로 본 그림 이야기

### 내 영혼의 그림 여행

정지원 지음



작가는 안치환이 부른 '사람은 꽂보다 아름다워'의 노랫말이 된 시를 쓴 정지원(37)이다. 시인은 그림이 시처럼 하나의 화면으로 압축해버리는 팽팽한 긴장감이 좋아 일종의 길 찾기 여행 삼아, 북상의 방편으로 그림 보기를 해왔다고 한다.

그의 그림 여행은 희·로·애·락의 파노라마다. 시인은 먼저 사람의 빛을 찾아 그림 여행을 떠난다. 그는 엄마가 딸의 귀자를 과주는 장면을 그린 김호석의 '어때 시원하지!'를 보며 그들의 대화에 빠져든다.

"엄마가 너처럼 꼬마였을 때 할머니도 엄마 귀를 꾸셨거든."

"아팠어?"

"아니, 잘 참았지!"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시간. 어린 딸은 엄마의 말에 웃다가 딸은 내색도 못하고 손가락 끝에 힘을 잡는다.

주고 있다. 시인은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잘 듣는 일에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그림에서 읽어낸 것이다.

그림 속에 스며든 사랑의 빛을 사같의 '리얼락 속의 연인들', 신윤복의 '월하점인', 고희의 '꽃핀 아몬드나뭇가지'에서도 찾아낸다. 이쯤이면 그림 자체가 사랑이다. 사랑이 있기에 즐겁고 행복한 풍경이다.

이어서 고통을 이겨낸 분노의 흔적이 완연한 그림들, 애잔한 슬픔이 물어나는 그림들, 그리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낸 희망 가득한 그림들이 소개된다.

이 책의 그림 목록은 등장 고금을 넘나든다. 렘브란트와 모네, 르누아르, 샤갈과 고흐 등 스피리스터의 그림이 있고, 벤 산과 일리야 레핀, 도미에 등 비교적 덜 알려진 화가의 그림도 있다. 김홍도, 박제가, 윤두서 같은 조선화가와 윤오, 강요배 같은 민중화가들의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그림들도 보여준다.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이 책은 그림이 평면이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엄청난 광맥이 묻혀있는 대지임을 깨닫게 한다"고 평했다.

〈한겨레출판·1만3천원〉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법원경매전문

GG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 062-226-0047

H-P 010-3895-7800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의성 분석에 의한 재태크 전문상담

▶ 아파트/빌딩

소재지 대/건 갑정기 최저가

봉산동 63/148 4억2천8백 2억8천8백

증평동 61/147 4억2천8백 2억7천8백

송정동 100/190 4억4천8백 3억1천8백

계림동 65/115 3억4천8백 2억1천3백

도원동 56/104 2억4천8백 1억2천8백

유촌동 60/133 1억4천8백 1억1천3백

화정동 58/195 1억4천7백 8천2천8백

현대동 33 6억2천8백 4억3천340

주일동 현대 31 9억3천8백 6억5천7백

월계동 현대 36 1억1천8백 7천700

금호동 리민 32 8천9백 6천230

▶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갑정기 최저가

신민동 41/40 1억1천8백 1억1천8백

문암동 60/62 2억7천 1억8천

유동 94/144 2억4천8백 1억3천340

무산동 188/193 10억9천 7억4천8백

노문동 40/34 4억2천8백 3억5천8백

화정동 110/259 8억2천8백 4억8천8백

월봉동 109/259 9억2천8백 5억9천8백

증평동 117/255 9억2천8백 5억2천8백

▶ 주택

소재지 대/건 갑정기 최저가

월산동 66/30 1억4천2백 7천8백

증평동 48/52 1억1천8백 8천2천8백

소촌동 57/55 8천8백 4천5천8백

문암동 41/58 1억4천500 1억5천8백

오지동 43/50 1억4천8백 7천8백

도원동 39/41 9천92 4천73

증평동 34/17 6천160 2천760

▶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갑정기 최저가

신창동 57/55 3억2779 2억2천3백8

증평동 34/48 7천8백 4천1백88

도원동 63/300 5억2천8백 4억4천5백44

증평동 11/130 6천34 6천34



새책

▲들어라 청년들아-정과리 문화읽기=문화 평론가이자 연세대 국문과 교수인 정과리의 산문집, 한류 열풍 이면의 대중문화, 인터넷 문화로 대변되는 언어 문제 등 한국사회의 정치·사회·문화·일상에 대해 지난 10년동안 저자가 생각하고 발언한 글들을 모았다. 〈사문단적·1만5천원〉

▲현대물리가 날 미치게 해!=물리가 날 미치게 해'의 저자들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사이 현대물리학과 관련된 250여개의 페플을 담았다. 삶은 달걀을 입구가 좁은 병에 넣었다가 다시 병밖으로 끄내는 고전적인 문제부터 하늘이 왜 어두운지 등 우주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하다.

〈한승·1만3천원〉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노명우가 '텔레비전 키드'를 자처하며 사람들을 움직이는 TV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담았다. 연구자 입장과 함께 평범한 '시청자'의 눈으로 이제는 '가족'이 되어버린 TV에 대해 이야기 했다.

〈프로네시스·1만 2천원〉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영국의 세필트 할렘 대학의 연구 교수인 사라 밀스가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사상 속에 내재된 모순들을 살폈다. 광기, 권력, 주체, 섹슈얼리티 등 푸코가 특정 개념을 사용했던 방식과 그의 이론을 비판하는 이론가들의 주장과 함께 병시켜 설명했다.

〈엘피·1만2천원〉

▲결정적 순간의 대면=케리 페터슨 등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교육, 컨설팅, 맞춤형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자들이 갈등의 심리를 살폈다. 과도한 업무, 비상식적 의사처리 방식 등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비롯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까지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을 소개했다.

〈김영아·1만5천원〉

▲오늘 하루=목사이자 동화작가로 활동중인 이현주의 에세이, 지난 2006년 저인들과 '주식회사 드립'이라는 회사를 차린 일화 등이 소개됐다. 사장도 예산도 사무실도 없는 유령회사에 가까운 회사에서 '풍경소리' '어둠속의 불꽃' 등의 책을 펴낸 과정을 담았다.

〈삼인·1만2천원〉

▲일년 동안의 과부 1, 2=출간 당시 뉴욕타임스 '올해의 우수 도서'에 뽑힌 존 어빙의 장편소설,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간절한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간다.

〈(주)사피엔스·1권 1만3천원, 2권 1만1천500원〉

▲21-세스 칼럼니스트의 사랑 방정식='쇼윈도'로 '제2회 문학수첩문상'을 받은 김경순의 장편소설. 삼류 주간지에 노골적인 사랑 경험담을 연재하는 세스칼럼니스트 강지희를 주인공으로 20, 30대 여성들의 사랑과 연애, 성 의식을 이야기한다.

〈문학수첩·9천원〉

▲울렛 클래식=오스트리아 라이에르스베르크에서 음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동황씨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최근 불고 있는 클래식 열풍